



단결과 연대로 책임지는 경주지부!

경주지부 14기 21호

발행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지부장 정진홍 전화 : 054-748-3223 팩스 : 773-9270 인터넷 : <http://gj.kmwu.kr> 발행일 : 2026.06.01.(월)

노동자가 투표하면 경북교육이 바뀝니다

6월 2일 자정까지 알리고, 6월 3일 투표로 만듭시다

이제 남은 것은 투표다. 6·3 지방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경북 첫 진보교육을 바라는 마음을 투표로 모아야 한다. 아이들의 학교를 바꾸는 일은 말로만 이뤄지지 않으며, 조합원과 가족들의 한 표가 경북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 된다.

선거 막판까지 교육감 후보에 대한 검증과 관심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26일 TV토론에서는 경북 교육의 방향과 후보들의 정책이 유권자 앞에서 다뤄졌다. 이어 5월 28일 예정됐던 경북교육감 후보자 TV토론회는 임종식·김상동 후보의 불참 통보로 무산됐다.

교육감은 아이들의 학교를 책임지는 자리다. 유권자 앞에서 교육의 방향을 말하고 검증받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책임이다. 정책을 말하고 검증받는 자리를 피한 것은 도민의 알 권리를 외면한 것이며, 교육감 후보로서의 책임과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설명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로 연결시키는 일이다. 6월 2일 자정까지는 가족과 친지, 동료에게 경북 첫 진보 교육의 필요성과 이용기 후보를 더 알려야 한다. 조합원 한 사람의 말이 한 표를 만들고, 그 한 표가 아이들의 학교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관심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아이들의 학교생활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공교육의 방향은 결국 투표로 결정된다. 6월 3일, 사전투표를 하지 못한 가족과 동료에게 투표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투표장으로 향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며, 마지막 한 표가 경북 첫 진보교육을 시작하는 힘이 될 수 있다.

경주지부 조합원과 가족들께서는 이용기 후보를 끝까지 알려주시고, 공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동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드는 길에 마지막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검목 '진보교육감' 세우기 **weeple**
 민주노동 경북본부 정치실천단
 6/1 ~ 6/3 마지막 위클리 미션

노동자가 투표하면 용기가 이긴다

조합원과 지인들에게 마지막 투표 독려 카톡 보내기

투표 인증샷 릴레이~!

교육감은 '이용기' 투표하기!!

우리가 할 하루 미션

- 카드뉴스 등을 카톡방, 텔레그램, 밴드 등으로 퍼나르기 ~
- 후원금 계좌(10만원까지 세액공제) 농협 301-0380-6259-41
- 홈페이지 yonggi-edu.kr
- 페이스북
- 블로그 blog.naver.com/yonggi-edu
- 유튜브 youtube.com/@이용기TV
- 인스타그램 instagram.com/yonggi24
- X(트위터) x.com/leeyonggi_



당신의 **한 표**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